

이홍재의 세상만사



논설고문

대학가야제는 7080세대들에게 아련한 추억이다. 서울대 보컬 그룹이었던 샌드페블즈를 기억하는가. 제1회 대학가야제(1977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들이다. 이들이 불렀던 노래의 제목은 '나 어떡해'. 산울림 멤버인 김장훈(당시 서울대 식품공학과) 씨가 작사·작곡했다고 한다.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트로트에 보다 익숙했던 우리에게 신선한 가사, 낯선 멜로디,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게다가 드럼 연주는 환상적이었다.

'모래와 자갈들'이란 뜻의 샌드페블즈. 그때 샌드(sand)가 '모래'인 것은 알았으니 페블즈(pebbles)가 '조약돌'이나 '자갈'을 뜻하는 것은 줄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점차 더 부끄러웠던 것은 '어떡해'라는 우리말을 잘 몰랐다는 것이었다. 그게 '어떻게 해'의 준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였다.

'호랑'(35)이라는 예명을 쓰는 가수가 있다. 그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누리꾼 맞춤법 교육에 나서 화제가 됐다. "SNS를 하다 보면 포기해야 할 대표적인 것이 맞춤법에 대한 집착이지만 그래도

갑자기 떠난 연인 때문이었다니

이번 한 번만 지적하겠다"면서 그녀는 평소 잡아 왔던 답답한 맞춤법 오류를 들춰냈다.

"당신이 '갖은' 게 아니고 '가진' 거임. '일부로'가 아니고 '일부러'임. '그러던 말던'이 아니고 '그러든 말든'임. '거예요' 아니고 '거예요'임. '이예요' 아니고 '이예요'임. '그래도 되' 아니고 '그래도 돼'. '임' '그래도 돼고' 아니고 '그래도 되고'임."

호랑과 이효리가 예쁜 까닭은

이렇게 흔히 잘못 사용하는 어휘들을 바로 잡은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듣고 누리꾼들은 "호랑 맞춤법, 속이 다 후련하네" "호랑, 역시 똑똑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 예인이 맞춤법 따위(?)에 관심을 갖는다. 나 도 내심 놀라서 그녀의 프로필을 검색해 봤다. 역시 먹물을 먹어서 다른 건가. 연세대 심리학과 졸업으로 나와 있었다.

얼마 전 방송에 출연한 가수 이효리는 자신이 "유난히 맞춤법에 약하다"고 고백했다. 학창 시절 국어를 굉장히 잘했는데도 자주 맞춤법을 틀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남편) 이상순이 봐 준다"고 했다. "소신 발언할 때 맞춤법을 틀리면 너무 창피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녀가 예쁜 것은 얼굴 때문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틀린 맞춤법에 대해 창피하게 생각할 줄 안다는 것, 그것이 참 예뻐다.

최근엔 소개팅을 하는 당사자들끼리 문자나 '카톡'을 통해 직접 약속 장소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맞춤법'이다. 맞춤법에 취약하면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이 떠날 수도 있으니.

실제로 올 초 방송된 모 케이블TV의 연애 상담 프로그램에서 '여자의 환상을 깨는 행동'으로 '문자 맞춤법이 틀리는 남자'가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어느 결혼정보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연인에게 확 깨는 순간이 언제였나? 그런 문항에 '맞춤법을 몰라 보내는 문자'가 틀릴 때'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물론 요즘 SNS에서는 '조아'(좋아) 등과 같은 의도적인 맞춤법 파괴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알고도 틀리면 센스'로 봐주는데 '몰라서 틀리면 확 갠다'고 한다. 맞춤법을

모르면 무식해 보이고 외제 차 아무리 자랑해도 무식한 건 용서하기 힘들다는 거다. (갑자기 떠난 연인 맞춤법 때문이었다니' 이 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이다)

30대 젊은이 7명이 전 직장 퇴직금 3억 5000만 원을 모아 만든 벤처 기업 '네이버컴'은 지금 15년 만에 시가 총액 27조 원가량의 한국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다. 창업자의 한 사람인 이해진(47) 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의 아버지는 이사용(77) 전 삼성생명 대표이사.

우리말 어렵다 한탄하지 말고

네이버 설립 초기엔 직원들이 대표이사인 이 의장보다 그의 아버지가 전 대표를 더 두려워했다는 얘기도 전해 온다. 아버지는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틀린 글자를 발견하면 아들에게 전화해 "틀린 글자 하나도 못 보는 놈이 무슨 기업을 운영하느냐"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직장인들에게도 국어 실력은 중요하다. 매일 같이 창조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설득력 있는 이메일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맞춤법에도 맞지 않

은 오류투성이라면 어느 직장 상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주위를 둘러보면 맞춤법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영어 철자를 틀리거나 한자 획을 하나 잘못 쓰면 얼굴이 빨개진다. 그러면서도 한글 맞춤법을 틀리면 얼굴이 빨개지는 건 "그럴 수도 있지 뭐"하며 동통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연애를 하기 위해서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맞춤법을 알아야 한다. 평생 글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표준국어대사를 클릭한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글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국어사전과 친하다는 것. 우리말이 어렵다고 한탄하지만 말고 평소 사전을 가까이 할 일이다. 여기에 한글 맞춤법 관련 책 한 권 정도는 사 놓고 시간 있을 때마다 정독할 필요가 있다. 며칠 있으면 한글날(568돌)이다.

끝으로 문체 하나. "아, 그 여자 남자 친구 생겼네. 그 여자는 진짜 예쁜데 남자 친구는 못생겼네. 아무래도 그녀에게 걸맞은 신랑감은 못 되는 것 같아." 여기에서 맞춤법이 틀린 곳은 몇 군데일까? (정답은 한 군데. '걸맞은'은 '걸맞은'의 잘못이다)

■ 노벨상 수상 일정		(한국시간 기준)
분야	수상자 발표	한국인 후보
생리의학상	6일 오후 6시30분	찰스 리 (서울대 석좌 초빙교수)
물리학상	7일 오후 6시45분	
화학상	8일 오후 6시45분	유룡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문학상	미정	고은 (배당률 25:1)
평화상	10일 오후 6시	
경제학상	13일 오후 8시	

■ 한국인 후보들		
찰스 리(생리의학)	유룡(화학)	고은(문학)
		
서울대 석좌초빙교수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단국대 석좌교수
사람의 유전체에 단위 반복번이 아닌 반복번이라는 구조적 유전체 변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세계 최초로 규명	직경 5~20나노미터(nm, 10억분의 1m) 크기 구멍으로 이뤄진 나노다공성 물질을 거꾸집으로 이용, 나노구조의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방법 최초 개발	대표작 '만인보' 영국 도박사이트 레드 브룩스 배당률 25대1

한국인 두번째 노벨상 수상자 나올까

'노벨상 시즌' 6일 개막

찰스 리 박사 생리의학·유룡 IBS 단장 화학상 유력 후보
생리의학 6일·화학 8일 발표... 고은 시인, 문학상 후보군

바이히르 노벨상의 계절이 돌아왔다. 스웨덴 한림원 등 노벨상 수여기관은 6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7일 물리학상, 8일 화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보통 목요일에 발표하던 관례에 비추면 올해에는 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노벨상은 과학분야의 유력 수상 후보로 한국인 과학자 2명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족집게 예측'으로 유명한 통스론티어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27명의 과학·경제분야 유력 후보 명단에 찰스 리 박사, 유룡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을 올렸다.

매년 노벨상 발표일을 앞두고 통스론티어가 자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 발표하는 후보 명단에 한국인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버드 의대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석좌초빙교수, 예일대 교수 등으로 재직 중인 찰스 리 박사는 생리의학상 후보에, IBS에서 나노물질 및 화학 반응연구단을 이끄는 유룡 단장은 화학상 후보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찰스 리 박사는 사람의 유전체에 단위반복번이(copy number variation)라는 구조적 유전체 변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찰스 리 박사와 함께 연구에 참여한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의 마이클 위글러 등 2명도 생리의학상 유력 후보로 선정됐다.

노벨 생리의학상은 현지시간으로 6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오후 6시30분)에 발표될 예정이다.

8일 오전 11시45분(한국시간 오후 6시45분)에 발표되는 화학상은 유룡 단장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찰스 크레스지, 미국의 게이런 스티키가 공동수상 유력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유 단장은 '가능성 메조나노다공성 탄소물질' 및 '제올라이트' 분야의 개척자로, 직경 5~20나노미터(nm, 10억분의 1m) 크기의 구멍으로 이뤄진 나노다공성물질을 거꾸집으로 이용해 나노구조의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방법을 최초로 개발했다.

이밖에 물리학상은 양자 스핀홀 효과 연구를 주도한 찰스 케인 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 로런스 몰렌캠프 독일 뷔르즈부르크대 교수 등이, 경제학상은 '기업가정신주의'(entrepreneurism) 연구에

문학상은 매년 단골 후보로 거론되는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한국의 고은 시인 등이 올해에도 후보군에 포함됐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 그룹이 갖가지 정보를 취합해 후보 목록을 작성하고 배당률을 산정하는 영국 도박 사이트 레드브룩스에 따르면 케냐 시인 응구기 와 시옹오가 배당률 4대1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는 배당률 5대1로 2위로 밀려났다. 하루키는 2012년과 지난해 2년 연속 1위 후보로 꼽혔으나 2012년에는 그해 처음 레드브룩스에 이름을 올린 모엔에게, 지난해에는 엘리스 먼로에게 각각 패했다. 하루키를 제외한 아시아 작가로는 중국 저항시인 베이다오(배당률 20대1)의 뒤를 이어 고은 시인(25대1)이 자리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도시철도 사장에 정선수, 문화재단 대표에 서영진씨

광주시는 2일 "신임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정선수(60) 전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장,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에는 서영진(65) 전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8면>

신임 정선수 사장은 지난 1974년 공직에 입문해 시 정책기획관과 경제산업국장, 광산구 부구청장, 도시철도공사의 지속적 발전과 합리적인 경영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정 사장의 임기는 오는 16일부터 3년간이다.

서영진 신임 광주문화재단 대표는 김재준 전 국회의원과 마지막까지 결합한 끝에 최종 책임자로 선출됐다.

신임 서 대표 이사는 광주교를 졸업하고 전남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광주일보 편집국장과 주필, 일본 히로시마수도대학 객원교수, 히로시마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서 대표이사는 신뢰조회 등을 거쳐 10월 중 임명장을 받게되며, 임기는 3년이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부작용: 수술 초기 이각 및 빛반, 노안 시력 교정 수술 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맑은 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세션 30여종)

항노화치료

기미클리닉

성형외과

지방이식 흡입

모발이식 관리

에스텍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① 리프팅레이저: 볼레리, 써미지, 웨나트 복합치료
- ② 이드름 레이저: 스무스빔, 아이클, 브이빔, 프락셀
- ③ 세오 레이저: 쉐닝스, 다이오우드제오
- ④ 피부 미백: 쉐닝스, 쉐닝스, 쉐닝스, 쉐닝스
- ⑤ 주름·출혈: 프락셀, 울트라펄스, 프락셀, 프락셀
- ⑥ 안티-에이징: 프락셀, 프락셀
- ⑦ 비인: 내오도프,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비엔빌D/F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텍틱: 385-0009

[윤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텍틱: 525-7555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